私民還送에 共産側誠意없다

우리側은70名、敵은外國人만十名

十八日板門店서數字를交換

六·二五사변중 수만명의 인재를 괴뢰에게 납치당하고 피납치인사의 가족은 물론 전국민이 그들의 귀환을 기다리던 유일한 희망은 정전협정 제五十九항에 의하면 실향사민귀환업무추진사무의 제一차 결실인 十八일의 귀환자교환으로서 거의 수포로 돌아간 느낌을 주게하고있다

공산측은 북한으로 부터 남한으로 돌아오는것을 희망하는「실향사민」(失鄕私民)이 단한사람도 없다고 十八일「유엔」측에 대하여 공식으로 통고하였다 공산측은 또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오는것을 희망하는 외국인실향사민 十명이 있다고하였으나 그의 명단 또는 국적을밝히지는 않았다 十八일하오 두시부터 한시간반 동안 판문점(板門店)에서열린 실향사민 귀환위원회에서 「유엔」측과 공산측은각기 그군사통제하에있는 지역으로부터 타지역으로 월경을 희망하는 사민의 수효에관하여 정보를 교환하였는데「유엔」측은七十명의 실향사민이 이북으로 송환을희망하였다고 적측에 통고하였다 이들은 모두한국인으로서외국인은 한사람도없다 송환은예정대로 三월一일부터 시작될것이다 실향사민위원회 「유엔」측대표「해리슨·K·세이언」대령은 공산대표 김무치 괴뢰군대령에대하여 二천八백卌一명에달하는 납치자의성명과 전주소를 적은 명단을 수교하고 그들은 틀림없이 귀향을 희망하고 있을것이니 휴전협정조항에의하여 귀향할수있다는것을 그자들에게 철저히주지(周知)시키도록 요구하였었다 「세이언」대령은 또「유엔」측은 협정대로 충실히 一월十五일이래로 二十一개소의 방송국을통한「라디오」방송이라든지 五만장의「포스터」기타의 방법을 동원하여 공지에 노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산측은 二월十二일부터 극히 불충분한 공지운동을 하였다고 공산측을 비난하였다

26日反應注目 共産側의誠意如何

한편이날문산(汶山)으로「세이언」대령을 찾아간 민의원국방위원장 임흥순(任興淳)의원이 말하는 바에의하면 우리가 기대하는납치인사의 귀환을희망하고 등록한 사람이한명도없다고 공산측은 말하였으나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동안 언제든지 귀향을 희망하는 사람의 귀향사무는 쌍방이취급해야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앞으로 공산측의 반응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세이언」대령은 말하였다하며 十八일 제一차숫자가교환되었지만二十六일까지 귀향희망자가 있으면 또제시해야 하므로 二十六일의 제一차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國防部서社會部로 引繼日字決定

反共靑年

반공청년들의 인계기일이 三월十일 十五일 二十일의三차로 각각 결정되었다고 그동안 사회부와 국방부간에는 이들의 인계기일을 두고 의견이 대립되어 왔었는데 구호대책이 완비되지못하였다는 이유로 사회부에서 그동안 국방부의 二월二十六일안은 반대하여왔던것이다 그리고 사회부당국자말에의하면 이들의인계방법및인계절차에 관해서는 아직도 양부간에완전합의를 보지못하였다고 한다

訪英言論人四氏 十日싱카폴向發

「런던」으로부터의 외신이 전하는바에의하면 영국 [illegible] 최두선(崔斗善) 김미진(金泰善) 고재경(高濟經) 모윤숙(毛允淑) 제씨는 十七일 영국의회를 방문하였다 일행은 「아쉬톤」 [illegible] 집은 [illegible]「D·도[illegible]운드」자유당의원과도 각각 만나 이야기하였다 한다 동일행은 二十일 영국시찰여정을 끝마치고 귀국하려하는데 [illegible]「카」에서 수일간 체류하게되리라한다

列車와「트럭」이또衝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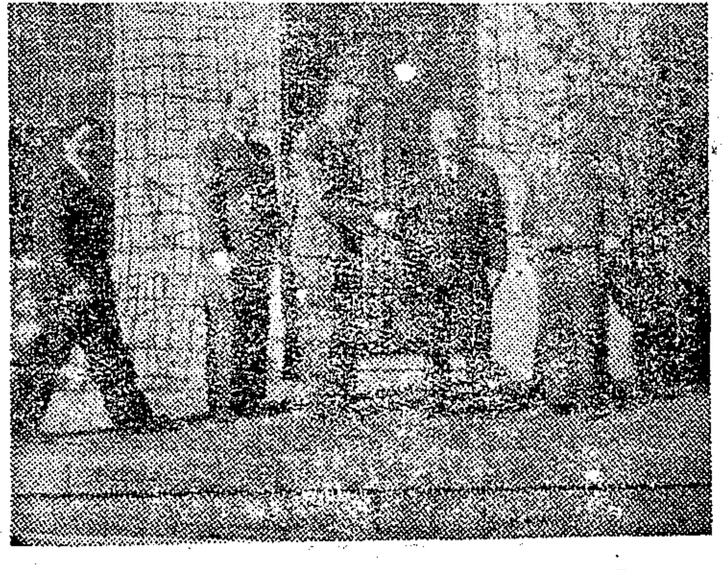
成歡驛北方서、美軍一名負傷

十八일아침八시반 부산역을출발한 서울행 급행여객열차(第四列車)는 하오五시十四분경 성환(成歡)역북방 三백「메터」지점에있는 도로(道路)와의 교차지점(交叉地點)을 통과하는데 마침 북쪽에서 남방을향하여 동지점을 통과하려던 소속불명의 미군「트럭」과 충돌하여 정거했으나「트럭」과 부딪친채 약一백五十「메터」가량 밀고가다가 완전정거되어「트럭」이 대파되고 승차했던 미군 三명중 운전수一명만이 중상을 입었다한다 그리고 열차와 승객에는 이상없고 동사고로인하여 정시보다 세시간늦게 밤十시五분 서울역에 도착하였다 한편 중상을입은 미군은 부근 미군병원에입원되었다

李大統領에感謝

反共中國青年들이記念品傳達

한국화교구국연합회(華僑救國聯合會) 이사장 증공(曾恭)씨는 十八일 상오十一시 이대통령을 방문하고 一만四천여명의 반공 중국포로들이 자유의 몸으로 석방한데 대하여 감사하는동시에 반공중국포로가 억류중에 작정한 기념품을 증정하였다 한편 동연합회에서는 十七일 하오六시 시내 모처에서 내외귀빈을 다수 초청한가운데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동회장에는 자유의 몸이 되어 대만에서 대륙반격의날을 기다리고 있는 一만四천여명으로부터 한국민에게 보내온 감사장이 진열되어있었다 (사진은 이대통령을 방문하고 기념품을 전달하는 광경)



李大統領을禮訪

西獨醫療團一行代表

서독적십자병원에서 한국에파견된「웬더후더」박사「저머」박사「칼론」박사등 三씨는 최보건부장관의안내로 十八일 하오二시 경무대관저로 이대통령을 예방하고 한국에병원을 설치하는데대하여 인사를 교환하였다 (사진은 이대통령을 예방한 동일행)

"搜査中이니 말할수없다"

滿三日이지나도當局은緘口

永登浦署事件 變死

강도혐의로 받은 강은현(康恩鉉)이란 해병대보조헌병이 영등포서장실에서 변사한사건이 발생한이후 만三일을경과한 十八일하오八시현재까지도 수사당국에서는 그진상을 말하기는커녕 이렇다할 말한마디도 않고 다만「수사도중이니 말할수없다」라고 답변하고있다 즉 지난十五일밤 사건이 발생하자 다음날 상오 十一시경에 전화보고를받고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이원희(李元熙)차장검사를 비롯한 진덕문(金德文)부장검사와 최재형(崔在衡)검사 등三명이 현장에출장하여 전후경위를 조사하는한편 이날하오부터 十七일하오六시까지 제五해군병원에서 최검사와 관계당국자 입회하에 최동(崔[illegible])박사의 집도로 시체해부가시작되었으나그결과단편적인 해부경과의 감정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하여 해부경과에관한 일부소식에대하여도 전연 함구불언하고 있을뿐아니라 그밖에 사건에 관련된점에대하여도 일체언급을회피하고있다 그런데 들은바에의하면 시체해부결과 어느정도 자살임을 증명할수있는 점이 밝혀졌다고하나 수사당국의고위층에서는 자살이라면 그동기를파악하기 곤란할뿐아니라 자살하기전에 써놓았다고 전하여지는 유서까지도 아직 증거력이 확연치못하다고 말하고있다

永登浦署搜査係長 極秘裡에問招

그리고 용수자를담당한 [illegible] 부장검사는 十八일하오부터 극비리에 영등포경찰서 수사계장에대하여 사건발생시의 전후경과와 죽은 강(康)을 진범용의자로 취급하였는가의 여부를 조사하고있으며 최동박사의해부경과에대한 감정결과를 기록하고자 시내모처로 출발하였으나 하오六시경까지 돌아오지않고있다

自殺說과否認根據

그런데 이날 확연치는않으나 감정결과 자살이라고 알려진점에대하여 일부권위있는 수사계통에서는 다음과같이 말함으로써 자살설에 대하여 시인하기곤란하다고 말하고있다 즉 해부결과 탄환이 배꼽위의 정면가운데를 맞고 척추(脊椎)에가서 관통되지않고 박혀있다고하는데 자살했다면 [illegible](美式)四五권총이 무겁고 약간 큰것인데 그것을 양편어느손으로 쥐던지 바로자기동체(胴體)내지 흉부(胸部)의 가운데를 겨누기가 힘들뿐아니라 가운데를 정면으로 겨누자면 상당히 집착이 그리고 시간이필요한데 자살할사람이 그러한 여유가 있을리만무하다는것이다 그러므로 자살인 경우이면 十중八九권총이 옆을 향하였을것이며 따라서 탄환도약간 횡행(橫行)으로 빗나갈것이라는것이다

十九日엔判明될듯 徐法務長官言及

한편 동사건에대하여 서(徐)법무장관은 이날하오六시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현재까지 확실히 알려진것은 앞에서 총을 쏘았다는것뿐이고 그밖에 [illegible]제소식은 수사도중이니 말할수없다 그러나 시체감정결과가 十九일정오경에는 대개 확인될것이므로 어느정도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만일 타살이 인정되면 서장을 구속할것이다」

"自殺로認定" 白內務長官答辯

한편 백(白)내무부장관은 十八일 기자들의질문에대하여 작보한바 경찰측의 강은현변사경위발표와 흡사한 내용으로 자살한것으로 인정하는 답변을하였다

尹局長은依然緘口

검찰(檢察)당국의 진상발표만이 구구한 억측과 관계당국의 사건발표내용을 명백히 가릴수있다고 보여지는 영등포의 변사사건에대하여 「지금 나로서는 무엇을 더 알려고 힘쓰는가」라고 윤(尹)서울시경찰국장은 十八일 기자의질문에 여전히 함구하고있었다 그렇다면 영등포강도살인범을 계속하여 수사하고있는가? 라는 질문에대해서는「물론하고있지요」라고 말하면서 용의자로 지명하였던 자인 죽은 강은현(康恩鉉)에 대한 수사 즉 강의 자도 영등포강도사건의 용의자로 알려졌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힘쓰고있음을 시사하였다

李永登浦署長에待機內定

治安局서後任發令을準備

十八일 내무부에서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이세정(李世鼎) 총경을 대기시키는 동시에 유능한 후임자를 보임하도록 내정하였다고 하는데 치안국수정보과김종삼(金宗三)총경이 영등포서장으로 부임발령된 것으로 보여지고있다 한편 영등포서장의 갱질은 세상에 알려진 영등포강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서장실에서 변사한사실이있은후의 처자인지라 주목처가되고있다

"鄭國殷"死刑을執行

18日下午二時—四時사이에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작년十二월五일 고등군법회의에서 간첩죄로서 사형의언도를받고 지난一월二十三일 공개집행된것이 발표되었다가 돌연 이유불명의 집행보류가되어있던 정국은(鄭國殷)의 사형이 드디어 十八일 하오 二시十분부터 동四시지나서 까지의 사이에 시내모처에서 집행되었다한다 그런데 또소식통에의하면 정국은에관하여 대통령이 검찰청에 조사명령을 하였던 모종 내용에대한 검찰청보고가 十七일에 서(徐)법무장관과 한(韓)검찰총장이 함께 경무대를 방문하고 행하여짐으로써 정국은의사형보류는 해제지령이 나온것으로 보인다한다 그런데 十八일하오 기자가 탐지한바에의하면 하오 五시경 홍제동 화장장에 一헌병중위가 인솔하는 구급차와 이것을 호위하는「찌프」차 두대가 관을 싣고 나타났다 하며 동시체는 동화장장안에있는 영현연락소에 들어가지않은점으로보아 민간인으로 추측되는점도있어 이것이 정의시체가 아닌가한다 그런데 목격자담에 의하면 동시체의관은 다량의 광고가 붙어 있었으며 일부파손되어 있었다고한다 그리고 동시체를 화장에 부치고간 헌병일행은 오후 七시반에 유골을 찾으러오겠다고하면서 돌아갔으나 十八일 오후十시현재까지 화장장에는나타나지않았다 한편 유골은 제二호화구속에들어있었는데 이二호화구만은 명패도 붙여있지않았고 분향대도 없었으며 화부도 그시체의 주인이 헌병이가져온것이라고 말할뿐 아무도 시체의 이름을아는 사람은없었다 그런데 화장장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이고 [illegible] 화구에 명패를 붙이기로되어있는것이라한다

오히려記者에게反問

아무것도몰으는鄭의家族

총살집행의 소식을 듣고 정국은의 자택 광희동을 찾아든것은 오후七시—마침 부인 이씨는 윗방에서 여자의사와 함께 조금전에 저녁을먹으러나갔다고、十五、六세의 식모가 말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안결과 정국은부인 이씨는 같이 집을 나서 [illegible] 혼자서 어디론가 나가면은 모양이었다 이씨가 오기를 두시간반—그동안에 창 지문을 하나 막았을뿐인 열 방에서 열세살 열두살 아홉살난 정의 세명의 딸들은 웃고 지꺼리며「그래요 한밤 거룩한밤」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九시반이 되어서야 이씨는 기자와의 면회를 거절하다가 나와서 아무사실도모르는듯「국방부에서는 뭐라던가요 국방부에서도 사형을 집행했다고합디까」하고 [illegible] 하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가지고 도리어 반문하여오는것이었다

어규에스號事件 仁川支院서判決

서울지방법원인천지원에서는 十七일「어규에스」호조난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언도공판에서 각기다음과 같은 판결을내렸다 ▲李鳳熙(船長)=禁錮八月執行猶豫三年(求刑=禁錮八月) ▲孫吉千(航海士)=禁錮八月(求刑=禁錮八月) ▲姜商熙(交通部仁川標識管理所長)=懲役一年(求刑=懲役一年) ▲金得任(交通部仁川標識管理所助役)=懲役八月執行猶豫三年(求刑=懲役一年) 그런데「어규에스」호(二千噸)는 대한해운공사소속으로서 묵호(墨湖)항에서 무연탄을 만재하고 인천을향하여항행도중 지난一월二일새벽五시경 인천항남서(南西)방백암(白岩)등대부근에서 짙은안개때문에 암초(暗礁)에부디처선두(船頭)일부분이파손되고 수백「돈」의석탄까지 해중에 투하시킨것이다 그리하여 수사당국에서는 전기선박승무원의 태만과 사고당시 백암등대의 등빛이커지지않은점을지적하여 동대관리책임자인전기 강(姜) 김(金)양씨등도합四명은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로 기소하였던것이다

새學期부터制服着用

全國大學長會議서決定

문교부에서는 十八·九양일간에걸쳐 전국대학장회의를 문리과대학강당에서 개최키로되었던바 있는데 첫날인 十八일에는 신년도학생모집과 학중확립문제등을비롯하여 七개항목의 지시사항이있은다음 대학의 학적안이심의되었다 그리고 교외증기확립문제에있어서는 출석률이 나쁜학생에 대해서는 제적처분을가하여 학적만결정되는 졸업하는일이 없도록 시정할것을 결의하는동시에 신학기부터는 남학생에 대해서는 제복과제모를 일제히 착용토록 결정하였다한다

救護糧穀의一部 旱害對策에充當

농림부에서는 구호양곡의 일부를 한해대책용으로 충당할것을 계획하고 있다한다

水原市에大紡織工場

三萬坪敷地로廿日頃에着工

【京畿支社】 수원시 당국자말에 의하면 세류(細柳)동 [illegible] 동흥(東興)직물공장자리에 대한방직공장이 신설된다는데 동공장의 규모는 부지 三만평에 三만추(錘)의 방기와 천여대의 방직기를 가설하는 방대한 공장이라 하며 이것이 완성되면 三천여명의 종업원이 취업케될것이라는바 동공사는 오는二十일경부터 착공케될것이라한다

一等은大田驛

交通親切月間成績

작년十一월十九일부터 十二월二十일까지 한달동안 여객자우친절향상월간을 설정하였던 교통부에서는 동월간에 우수한성적을 나타낸 각역과 종업원에게 오는二十일 아침九시반 교통부회의실에서 포창을하리라하는바 수상자는 다음과같다

▲驛=一等大田 二等天安 三等三浪津 四等서울 五等木浦 六等榮州

▲職員=金大斗(深川驛長) 曺宋起(龍山驛小荷物助役) 金福吉(光州驛案內係) 崔鍾厚(釜山驛案內係)

板子집撤去旋風

釜山中心街、19日부터

【慶南支社】 작년겨울부터 부산시내의 판자집철거바람이 불어 시내중부일대판자집은 거의 철거되고 일단중지한바 있었는데 해동이되기시작하자 또다시 판자집 철거바람이일어나 十九일부터 부산역구내에서부터 시작하여 제一부두 제二부두에 이르기까지 산재한판자집 전부를철거하게되었다한다 그런데 금번철거는 미후방기지사령부 요청에의한것으로 전[illegible] 각구산또는 당분간의식량등을 배급한다는 사후조치가있다고한다

三一節을記念 釜山서藝術祭計劃

【慶南支社】 제三十五회째 三·一절을 경축하기위하여 문총(文總) 경남지부와 부산시에서는 경남도의 후원으로 三월一일부터 七일까지 一주일간에걸쳐 三·一전경축예술제를 거행하기로 되었다는데 이는 [illegible]예술분야에걸쳐 다채로운「푸로」로서 장소와 시일은 다음과 같다

一、音樂·舞踊·詩朗讀 三月一·二日釜山劇場

二、美術展 三月一日부터 七日까지 國立博物館釜山分室

三、西畵展 三月一日부터 七日까지 [illegible]·[illegible]茶房

四、藝術寫眞展 三月一日부터 七日까지 國際市場內「[illegible]」茶房

五、映畵 三月一·二日 美公報院

「잔디씨」四百石 美國에輸出準備

농림부에서는 국내에서 수집한「잔디씨」를 미국에 수출할 계획이라는데 금번수출하는「잔디씨」는 四백석이 수집되어있는가운데서 우선 三석(五백「파운드」)을 一파운드에 六十五「센트」의 가격으로 수출하기로 되었다 한다

將次는美留學까지

크上士가孤兒養育

전쟁고아를 [illegible] 교육까지 시키고있는 미국인 [illegible] 협성고등학교(協成高等學校)에서 [illegible] 김영주(金英[illegible])소년(十五)은 [illegible] 전쟁중에 부모를 잃고 [illegible]「크로우스」라는 一등상사가 [illegible] 구원하여 [illegible] 三주 [illegible] 미국에 [illegible] 공부하러간다 [illegible]

三年재두고慰問品

美에女史가國軍에

三년동안 이나계속하여 국군[illegible]에 위문품을 보내온 미국부인이있다 [illegible]

亞洲競技鬪選拔

卄七·八日에開催

대한「아마츄어」권투연맹에서는 제二회「아세아」경기대회 파견권투후보선수 최종결정대회를 오는二十七·二十八양일간에걸쳐 서울운동장에서 거행키로되었는데 동대회참가자격자는 전에거행된 一·二·三차 후보선발대회에서 선발된 후보선수로 인정된자에한하며 이번대회에서 각급(級)을 망라하고 우승한자는 제二회「아세아」경기대회 파견후보선수로 결정하리라한다

▲歷史學會月例發表會 二十一日上午十一時 서울文理科大學에서 講師는 金斗鍾氏 題目은『韓國上世醫學과 外國과의交流』

19日 ▲서울地方=北西風乃至北東風이불고 맑은後 흐려지겠다 (十八日最低氣溫零下八度 最高氣溫零下零度四分) ▲釜山地方=北西風이불고 맑겠으나 한때 흐리겠다 ▲日出=七時一八分 ▲日沒=一八時一四分

色鉛筆

◇…「자동차 취체규칙위반」으로 치안재판에서 三일간의 구류처분을 받고 서대문에 신세를 지게된 어떤「트럭」운전수……

◇…시내의 어느 파출소앞을 지나려니 순경한사람이 차를 세우며 일반인 세명을 태워달라는 부탁에 그대로 응낙

◇…그러나 원남동파출소앞에 이르러 급기야는 순경의 취체를 받게되었다「왜 일반인을 태웠느냐」고…

◇…운전수는 물론 자유를 말했으나 용인되지않아 자혼자만 유치장신세가된것

◇…이쯤되면 알수없는것이 규칙이고 친절도 적당이라는것이 그의하소연

라디오◎

二十日 ▲뉴스 六時 一二時半 一七時 一九時 二一時 ▲美國의소리 七時 一九時半 ▲「유엔」軍放送中繼=二二時 ▲七時四五分 家庭時間「男性이본女性」 ▲一一時 放送劇「젊은이의 [illegible]」崔瑞林作 ▲一一時四五分「敎師道」 ▲一八時「어린이時間」무엇일까요 朴一岩作 ▲一八時一五分 家庭娛樂會「노래의선물」 ▲一八時半 座談會「좁은門은어떻게열리려나?」司會 梁大錫 아나운서 ▲二〇時 우리歌曲의밤 李齊九獨唱 史相鶴伴奏 ▲二〇時一五分 國樂解說 ▲二〇時半 유모어劇「돈」 ▲二三時半 連續朗讀「붉은中國의逆徒」 [illegible]

演藝案內

▲市公館=演劇「再逢春」 十九日公演中 ▲首都=映畵「追憶의[illegible]」 ▲中央=映畵「[illegible]史」 ▲東洋=樂劇「[illegible]」 ▲文化館=映畵「北西로가는길」 ▲東都=演劇「白鳥의 花園」 ▲城南=樂劇「[illegible]」 ▲京畿=演劇「[illegible]」 ▲光武=映畵「火線超特急」 ▲明洞=映畵「[illegible]」 ○水原 ▲水原=映畵「濁流」 ▲中央=演劇「春外春」

懸賞當選小說

별 (10)

崔昌大作 白榮洙畵

바로 그 곡예사(曲藝師)다。 야성적인 눈썹이 바로 그다。 탄탄한 몸이 바로 그다。 그이라고 가는 미군도 그때 그자리에 틀림없다。 무자비를 실은 남자가 중앙파출소앞을 돌아 사라질때까지 홍욱이는 박은것같이 서서 바라다 보았던것이다。 뿐만아니라 기빛 자취까지 눈에서 사라진다음 비로소 그 사내의 군모에 육군대위계급장이 붙었던것을 깨달았다。 군인이 틀림없다。 군인다운 자태의 모양이다。 미군과같이 다니니까 연락장교(聯絡將校)라고는 짐작된다。 뭐가 뭔지 알수없어서 [illegible] 다방에 들어갔다。 생각해 보려고 했다。 그러나「쪽쓰」에 앉아 생각하나 무엇을 생각해 보려고 뭐 있는지 도대체 알수가 없다。 얻어 맞은것만 같다。 남의 일 같기만하다。

「김선생님 아직 돌아가 주무세요。」 부드러운 말은 했다。 김선생은 의외에 놀라 히 남의 속을 들여다 보고 무시면 어떻게 하나다고 우무리고 앉았던 김선생은 우선 살아날 생이다。

「어떻게 하나?」

입에서 소리까지 나왔다。 주광관은 재상 위에 앉어 두 손으로 턱을 받치고 꼬무룩하게 정이 난 홍욱이는 또 생각한다。 그러나 도무지 구것은 생각해야 된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메마질 따르릉하고 전화통이 울리는 것은 듣고 홍욱이는 이상 더 생각지 않으려고 머리를 저은고 일어섰다。 수화기를 들자 울리는 음성은 종문이다。

「여보세요! 거 홍욱께 계십니까?」

「네! 저예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곧 갈테니 기다려 주십시오!」

「게서만 쓰다시면 ?하잖아요」

「아니 안돼요。 여기서 하다가 거절을 당해버리면어뗗게 하게…전화는 우선 집에 있나 없는줄 알아보는 게 [illegible]」

[illegible] 자기가 사는 [illegible]「파티」가 있으니까 꼭 참석해 달라는 것이다。 누구 누구 누구 아가씨들도 나오고 누구 누구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춤도 춘다는 것이다。 모시러 가겠다는 것은 막고 망서리다가 홍욱이는 가겠다고 대답해 버리었다。 이럴 때 춤이라도 한번 추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이다。 종문이와 어울려서 되는대로 놀아 보았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다。 밤이 새도록 추어 보리라고 생각했다。 누구에게 추어 보이는것인지는 모르지만 종문이와 어울려서 실컷 추어보리라 했다。

[illegible] 차디찬「오렌지」주스를 다 마시고나니 숨이 좀 가라앉는 것 같다。 마치 무슨 죄를 지은것 같기만하다。 누가 잡으러 올것같기도 하다。 좌우간 알수 없는 일이다。 아무데도 알수 없는 마음이기에 홍욱이는 돈을 치르고 도로 거리로 나왔다。 그편이 훨씬 나았다。 중앙동을 되돌아 와서 국립극장앞을 지나고 시역(驛)쪽으로 빠져 또 공회당 앞에 이르니 무슨 원(圓)을 한바퀴 돌고난 셈이 된다。「빼스」를 타고 갈까하다가 또 걷기 시작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무엇에 만나질것만같은 감정이다。 거리에 전깃불이 환해지는 것을 보고 홍욱이는 집에 돌어 섰다。 수금원이 많이 와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다 지다리고 있는 [illegible] 금 바쁘지 않다。 내일이라도 좋고 모레라도 좋다。

學生募集廣告

高等學校 (前期) 一一〇名 (後期) 一八〇名

中學校

檀紀四二八七年二月十五日

서울特別市西大門區弘濟洞三八

(設併) 서울女子商業高等學校 서울文英女子中學校

注意 未詳한點은本校庶務課에問議하시압

第二回全國男女高等學校對抗雄辯大會

一、日時 檀紀四二八七年二月二十六·七兩日間

二、場所 서울市公館

三、後援 文敎部 國防部 內務部 서울新聞社 京鄕新聞社 中央學徒護國團

四、參加要領

(1) 參加資格 男女高等學校現在學生으로서學校長의推薦을받은者

(2) 原稿接受處 서울特別市城東區新堂洞五二의四 檀大學生課

(3) 原稿接受期間 二月二十日限

(4) 原稿審査結果發表 二月二十四日

(5) 其他詳細事項은各高等學校要項(旣發送)을本大學에問議할事

五、授賞 (1) 一等 一名 (2) 二等 二名 (3) 三等 三名 男子部 女子部 各優勝旗及賞狀 副賞

主催 檀國大學學徒護國團

技術要員募集

一、募集處 서울特別市警察局武器廠

一、募集科目 1、旋盤工 2、뿌레스型工 3、모구로工(피—스、보도、鐵工用) 4、鍛冶工 5、製罐工 6、酸素及電氣熔接工 7、鍍金研磨工 8、其他鐵工의特技가有한者各若干名

一、應募資格 1、年齡滿二十五歲以上男子로十年以上有經驗者 2、國民學校卒業以上學歷이有한者 3、思想이堅固하고身體健康한者 4、禁錮又는破廉恥罪宣告를받은일이없는者

一、待遇 技術實力程度로優待함

一、提出書類 1、履歷書三通 2、戶籍謄本又는抄本一通 3、身元證明書二通 4、身元保證書二通 5、寫眞二枚

一、書類接受期間 自檀紀四二八七年二月十四日 至檀紀四二八七年二月二十八日 但地方技術者에便利를圖謀키爲하야右記와如히期日을延長함

一、募集場所미問議處

서울特別市警察局 武器廠技術部

中央廳앞京畿道廳通路

公告

國聯軍關係業者에對한特別外貨貸付取扱節次를左記와如히變更實施함

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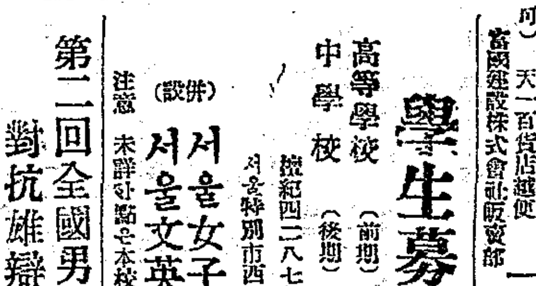
一、貸付申請期間 自二月八日 至二月二十二日

二、貸付申告書類 1、[illegible] 2、[illegible] 3、[illegible] 4、[illegible] 5、[illegible]

但 [illegible]

檀紀四二八七年二月十六日

韓國銀行



海外旅行은 CAT航空機로

東京·岩国

東洋의各重要都市와 世界各都市直結

食事와飲酒無料提供

航空料金最低奉仕

韓國代行社(서울) 大韓國民航空社 電話② 3795

釜山代行社 大韓國民航空社 電話 5634, 5644

民間航空運輸公司 CAT CIVIL AIR TRANSPORT

集合廣告

求人 女子 二十五歲 未滿 店員 面談時間 自午前十一時 至午後二時 場所 鍾路區寬勳洞九三 [illegible]茶房

賣買 物 鐵製탕크 六石入 五拾圓 (厚度分五厘乃至二分) 價格은面談 右物品買受希望者는左記場所로問議하시압 天一百貨店 富國建設株式會社販賣部

本社廣告部直通 電話② 四四六九

復路 痔疾專門 姜明宣肛門科

總會通知

今般本會定期總會를左記와如히開催하오니 會員(서울特別市指定都給業者)은無遺參席하심을仰望하나이다

記

一、日字 檀紀四二八七年二月廿三日午前十時(火曜日)

一、場所 서울特別市鍾路區觀水洞一二一國一館

檀紀四二八七年二月十六日

서울市廳土建業者會 理事長 李盛根

市民健康을 名馬酒로 祝盃

맛난料理를 調理할수있는 우리나라 最高級醬油인

샘표간장

容器付販賣開始 市中 各食料品店 에서 販賣中 (一斗以上市內配達)

三矢醬油釀造場

서울特別市中區乙支路四街一七九 TEL(2)3312

徽章·帽票·메다루·박클·七寶마크

軍·官公署·學校·團體 指定

紀念品·高級製品等下命에應함

代表電話(2)2235番

서울特別市鍾路區鍾路1街73

韓國商工社

第1工場 鍾路1街73 第2工場 [illegible]

映畫史上最高의偉業

超自然의 戀愛·青綠色으로 물드린 처참한 海溢 神秘와 사스펜스와 魅惑에 넘치는 全女性必見의 名畫!

제니의肖像

名匠월리암、디다—레 監督

조세프 코튼 제니퍼、존스 主演

"드디"어 待望의 一般公開!!

18日부터 團成社

SRO

PORTRAIT OF JENNIE